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2

## 역경을 딛고... 사랑을 담아... 내일을 향한 질주

이색 참가 선수·단체

## 15번째 풀코스 완주 도전

42.195km 완주는 일반인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번에 풀코스 완주에 도전장을 내민 1급 시각장애인 이윤동(50·울산시 남구 신정동)씨는 3년반만에 14번이나 완주한 철인이다.

이 씨는 원쪽 눈이 아예 보이지 않고 오른쪽 시력은 0.04에 불과하다. 0.04의 시력은 21인치 컴퓨터 모니터에서 72포인트(가로 세로 약 3cm크기)로 확대한 글자를 읽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씨는 42.195km를 달리면서 결코 장애인에겐 한계가 없음을 뼈으로 보여주고 있다.

1급 시각장애인 이 윤 동씨

이 씨의 인생역정은 마라톤만큼이나 힘겨웠지만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인간승리의 역사였다. 이 씨는 중학교 1학년때 친구가 던진 책의 모서리에 원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마저 잘 보이지 않게 됐다.

그때부터 이 씨는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10여년간 세상을 등졌다. 중학교 1학년 학력수준에서 멈춰버린 것. 이런 이 씨가 24세 되던 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됐다. 이후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4년간 공부에 매달린 끝에 1980년 고입과 고졸검정고시에 잇따라 불았고, 경북대 사학과 합격증까지 거두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공부를 만류해 학업에 대한 미련을 안은채 만마와 지압을 배운 뒤 침술원을 운영해 왔다. 학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은 이 씨는 2004년 울산대학 행정학과에서 꿈에 그리던 대학졸업장을 갖게 됐다. 그리고 박순우(51)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한자공부를 시작해 한자능력 검정시험 1급에 당당히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한 풀이 하듯 공부에 매달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준 것은 달리기. 이 씨는 2003년 울산시각장애인협회장을 맡으면서 마라톤과 인연을 맺었다. 동반주를 해주는 이태결씨의 정성과 후원에 힘입어 이 씨는 2003년 울산시 하프마라톤대회에서 공식 데뷔한 후 올해 3·1절 대회에서 풀코스 15번째 완주에 도전한다.

## “95세까지는 열심히 뛸것”

신체 건강한 성인일지라도 우습게 보고 덤벼들었다

93세 최고령 이 증 현옹

간 낭패를 보기 쉬운 마라톤 5km 구간. 더군다나 백수(白壽)를 바라보는 노인이 된다면 그건 엄청난 난관이다.

그러나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최고령으로 참가한 올해 93세의 이증현옹에겐 그리 어려운 거리가 아니다.

“뛰지 않으면 오히려 숨이 차고 하루하루가 힘들어. 하리는 약간 구부리쳤지만 95세까지는 열심히 뛸 생각이야”

걷는 것도 힘들 것만 같은 나이인데, 이 옹의 각오는 젊은이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다. 그도 그렇겠지 이 옹은 17세부터 마라톤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마라톤 인생 76년째의 건강노인이다.

그의 달리기 인생은 17세 때인 1931년 동아일보 황해도 황주지역에 서 배달수급사원으로 일하면서 시작됐다.

새벽마다 신문 한 무더기를 엎구리에 끼고 배달을 위해 뛰었다. 건강도 쟁이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달리기와 인연을 맺었다. 청년은 이후 1932년 평양 마라톤대회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다. 이어 1934년 부산~신의주 구간 마라톤대회를 비롯해 6·25전쟁이 발발해 월남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300여 차례 마라톤대회라면 모두 뛰어 다녔다. 현재 이 옹이 사는 대전 집 응접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트로피와 메달, 상패, 상장이 그의 화려한 마라톤 인생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 일본등 해외대회까지 참가한 경력이 있는 이 옹은 국내 아마추어 마라톤계에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운다. 이 옹은 최근 각종 마라톤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산가족 남북통일’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5km 이상을 거뜬히 소화해 내 주위로부터 박수와 시선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이 옹은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해 동네 주변을 가볍게 달리며 컨디션을 조절 중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급 시각장애인 이윤동씨가 지난해 열린 제4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역주하고 있다. 이 씨는 이번 제42회 대회에도 출전, 풀코스에 도전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도청 마라톤동호회

## “우리도 뛴다”

- 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3·1절 마라톤 계기 전국으로 홍보

“3·1절 마라톤의 열기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로 이어가겠습니다.” 제42회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전남도청 마라톤동호회(회장 양근석 수산유통담당) 회원들의 다부진 결이다.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의 이번 대회 참가 회원은 모두 22명, 회원들은 매년 20여회 전국 규모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3·1절 대회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고 어느 대회보다 전통이 깊어 참가하는 회원들의 자부심과 열의가 대단하다.

특히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높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3·1절 대회 코스를 달리며 지역은 물론 전국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의지를 널리 알리는 ‘홍보 달립이’가 되겠다는 각오다.

양근석 동호회장은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은 3·1절 마라톤 대회 코스를 달리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등 전남도의 지역발전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라며 스타트



전남도청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겠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도청 마라톤 동호회원 가운데 베테랑은 단연 홍경섭(55) 전남도의회 교육사회 전문위원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마라톤 마니아’인 홍 전문위원은 나이 50을 훌쩍 넘겼지만 이미 각종 대회에서 풀코스 2차례, 하프 9회 등 10회 이상을 뛴 건강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유사석 유제품 균질 홍보”

김중호 지사장 등 16명 출전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김중호(앞줄 왼쪽부터 네번째)지사장과 직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사석 유제품 균질을 위해 뛰겠습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김중호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 16명이 제42회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아침차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특히 이번 마라톤 대회를 유사석 유제품(세녹스, LP-Power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균질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중호 지사장은 “유사석 유제품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국가적인 손실을 보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번 대회를 광주·전남민들에게 유사석 유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 삼겠다”고 참가동기를 밝혔다.

대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의지도 남다르다.

퇴근 후 매일 집 주변을 1시간 이상씩 뛴다는 신입사원 곽대송(28)씨는 “우선 내 자신이 건강해야만 업무 의욕도 높아진다”며 “인내심과의 싸움이 마라톤의 정신을 배워 유사석 유제품을 균질시키는 근성을 키우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사내 유일한 홍일점인 손자흡(29)씨도 5km 완주를 목표로 체력을 키우고 있다. 마라톤에 첫 도전장을 내민 손씨는 “그동안 등산 및 조깅으로 체력을 틈틈히 키워왔다”며 “이번에는 5km지만, 앞으로 10km, 하프, 풀코스에도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